



정읍보호관찰소·농협 시지부 농촌 활력 제고 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와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21일 정읍보호관찰소에서 농촌지역 사회공헌 확대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에 합의하는 '노농리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농사랑 운동은 기업의 ESG경영 실천을 농업·농촌 분야로 유도하고 농협-기업간 상생협력을 내실 있는 실천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 정읍시지부와 정읍보호관찰소는 정읍농과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복지 대상자 농촌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정읍보호관찰소도 2023년 1,443명의 사회복지대상자 농촌인력지원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농촌인력지원에 약 2천명의 사회복지대상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정읍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추진으로 행복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진 소장은 "농협중앙회와 정읍시지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촌마을 활성화 등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ESG 경영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지전대, 전주청년 프리마켓 성료

전주지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19일 전주객사길 일원에서 개최한 전주청년 프리마켓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시 청년 창업자들이 참여해 한식 디저트부터 친환경 핸드워시, 소품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시식과 체험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청년 프리마켓'은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부스 운영을 지원하는 행사로 청년 창업자들은 다양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얻고 창업자 간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다.

조덕현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주시와 전주지전대학 산학협력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은성 기자



나사모, 남원 대강면 지역아동센터 결연 방문

남원시 대강면 관계자는 지난 18일, 나사모(나눔을사랑하는모임 회장 이재성)가 대강면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인광운)를 방문해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결연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사모가 평소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어 지역아동센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결연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매월 1회 직접 방문을 통해 쌀과 라면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이영 대강면 복지팀장은 "나사모는 2017년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아이들에게 쌀과 라면을 후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어버이 효잔치, 김장 봉사 등 14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표 팀장은 "대강면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나사모의 정기적인 후원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끼와 열정! 언제나 청춘!'

제2회 실버가요제, 진안고원시장 주차장서 개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안군지회(지회장 김정만)에서 개최한 '제2회 실버가요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진안고원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동창욱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원, 안한수 전 노인회장, 강용희 민주평통회장, 우태만 애환본부장, 어르신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구동수 진안군노인회 회장을 대신해 대회 인사에서 김정길 자원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이어 2번째 실버가요제를 개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큼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얻어지는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만들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갖고 두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는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과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축사에서 "주최측의 노고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가요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생활을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가요제는 15명의 불꽃튀는 경연과 초대 가수 한수정(미스트롯신동)의 축하 공연을 시작

진안지회 회원 및 초청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제2회 진안고원 실버가요제 영예의 대상은 빈지계를 부른 공성웅님, 금상에는 조찬열님(남원의 애수), 은상에는 정운덕님(비내리는 명동가리) 동상에는 임병창님(내연인)이 차지했으며 인기상은 관객이 합박웃음을 선사해 박수를 받은 백종길 손병자님이 차지했다. 김정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시대의 부모님들은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국가발전을 위한 삶을 돌아보면 역경의 세월 속에 그 백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함의 연속이었기에 이제부터는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강조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아트로 테라피 라~라댄스' 국악&댄스 콜라보 찬조 출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석대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소장 홍미성 교수가 운영하는 2024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일환 '아트로 테라피 라~라댄스'가 지난 19일 정읍 달하리에서 열린 제6회 Best of Korea 국악&댄스 콜라보 페스티벌에 찬조 출연했다.



라~라댄스 관계자는 "아트로 테라피 라~라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연 경험을 통해 노인들이 인생에서 가

장 화려했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기에 행복감과 자존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아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결과물로 공연을 하고 이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트로 테라피 라~라댄스'는 나를 춤추게 하는 율리움을 통해 서로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김재훈 기자

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무주군에 장학금 490만원 기탁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490만 원을 기탁했다. 회원들은 이날 일시금으로 1백30만 원을 우선 기탁했으며 이중 29명은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매월 1인당 1~2만 원씩 연간 3백6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 1백30만 원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음식 먹거리 식당 부스" 운영 수익금 일부와 여성농업인 환경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된 '다(多)가치 나누는 친환경 시장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합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회원들은 지역 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활용해 농산물 수확 때 활용할 수 있는 알차며 100장을 제작 반딧불축제 때 무료 배포하거나 다(多)가치 나누는 친환경 시장 바자회를 통해 판매했다.

또 한 옷을 비롯한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용품 등의 생활용품 나눔, 파자마와 행주 등을 전시·판



매했다.

윤정순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회장은 "지역 행사에 참여해 우리 회원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그 결실은 인재 육성을 위한 거름으로 쓰게 돼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금융지사협, 취약계층에 김치 3종 세트 전달

남원시 금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노환순) 민간 최인술은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김치세트 3종 3종 세트를 전달했다.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 매년 추가 요청이 이어질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인술 위원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환순 금융동장은 "뜻깊은 사업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비전대 '하이트 진로 취업교육' 운영

전주비전대학교 취업업체(처장 박심훈)는 지난 18일 기업 채용맞춤형반 '하이트 진로 취업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채용맞춤형반은 특정기업 취업을 목표로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1:1 모의면접을 실시, 학생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취업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심훈 처장은 "이번 기업채용 맞춤형반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에 더욱 집중하고 취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특정기업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맞춤형반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기업채용맞춤형반은 지난 8월 이뤄진 '지역인재 9급 공무원반' 이후 2회차다.

/장은성 기자



남원 윤봉음, 황산대첩 축제·윤봉음민의 날 행사

남원시 윤봉음은 지난 20일, 제39회 황산대첩 축제 및 제22회 윤봉음민의 날 행사를 황산대첩비지와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윤봉음민, 주요 내빈, 재경향우회원, 자매결연도시 지역인 서울 종로구 창신제1동 동민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화식을 통해 황산대첩의 위적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허버리 재전 제막식을 진행했으며, 시상식에서는 지역발전 에 이바지한 신동기(공익장), 임한수(산업근로장), 오동근(애향장), 양재우(행정공로장), 최진희(모범노인장)님이 읍민의 장을 수상했다.

이어 장군 활쏘기, 부녀부호대회, 병사웃음이 장군·병사 제기차기 등 체육 경기로 윤봉음민과 향우들의 단합력을 과시하였고, 화합행사에서는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의 장이 펼쳐졌다.

이은주 윤봉음장은 "이번 행사는 선조들의 구국·애향 의식을 되새기고 윤봉음민 모두가 하나 되는 한마당 축제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제28회 '산동면민의 날' 성황리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19일 산동초 운동장에서 제28회 산동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발전협의회(회장 고재운)가 주관한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면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물 공연, 기념행사, 체육행사, 화합행사로 진행. 화합행사에서는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면민이 하나 되는 흥겨운 한마당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한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이춘철(공익봉사장), 조희갑(애향장), 진홍일(효열장), 김성려(장수상) 씨가 면민의장을 수상했으며, 손임 씨가 다문화 화목상을 황길성·김병선 씨가 감사패를 조숙경·김세라 씨가 공로패를 수상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이병철 재경산동향우회장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제2중양경찰학교 남원 유치, 남원누리 시민제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시정을 홍보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20가구 겨울이불세트 전달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21일,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겨울이불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불 전달은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된 이불 하나라도 사계절을 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방 취약계층 20가구에 겨울이불 20세트를 전달하며, 일부 확인과 전달이후 화재예방교육 및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전달한 이불은 도동동 사랑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을 사용해 지원순환의 가치와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으며, 동 관계자는 일반시민 누구나도 가질 수 있는 물건 기준으로 사랑나눔장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어르신은 "올해 겨울은 많이 추울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불을 가져다줘서 매우 고맙다며,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추위될 겨울을 대비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겨울이불 세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동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